

---

# 20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체계 확립 연구

---

2018. 6

 KSBI 중소기업연구원

## 제 출 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체계 확립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6

중 소 기 업 연 구 원  
원 장 김 동 열

# 연구진

## ■ 연구책임자

---

남 윤 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최 은 식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후  
여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 요 약 】

## 1. 연구배경 및 목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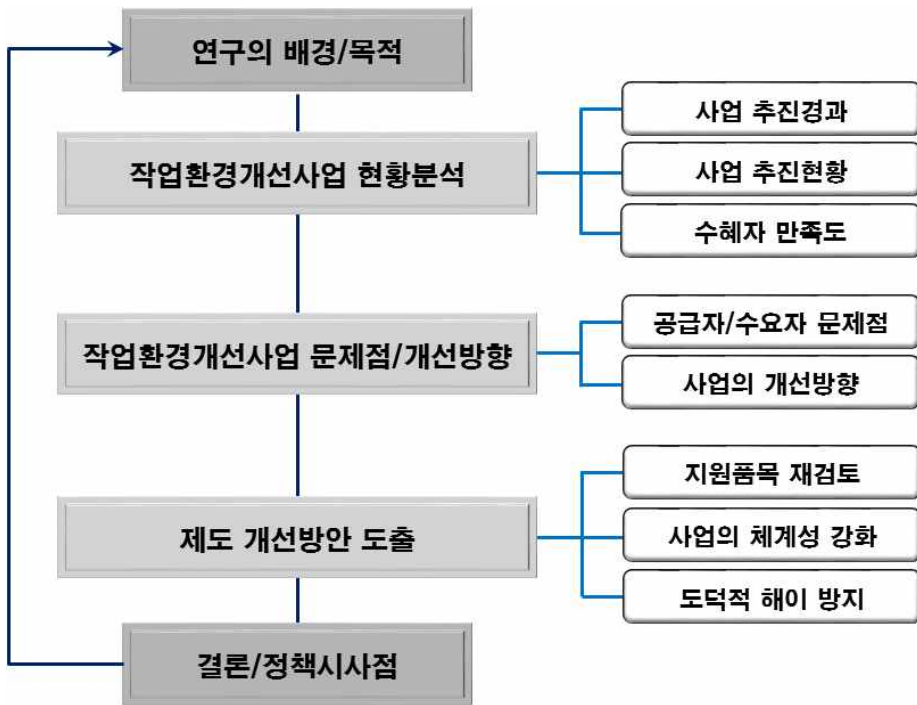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영세 의류제조 업체의 쾌적한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최근 일감감소 등 영세 봉제업체의 생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작업환경개선사업’ 운영방법·내용 등의 체계적 검토 필요
- (연구목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사업의 추진현황 및 효과, 수요자를 기반으로 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지원품목 재검토, 사업의 체계성 강화, 도덕적 해이방지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 연구의 내용 및 체계

-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1단계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현황 분석
  - 2단계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3단계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정책자료 및 문헌분석,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자 대상 FGI 실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

[연구의 체계]



## 2. 작업환경개선사업 현황

### □ 사업의 추진경과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4.5) 및 시행('15.5)
  - 법 제19조에서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규정
  - 시행령 제12조에서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시는 법에 근거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15.10~) 중 : 작업환경개선사업

□ 작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18년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서울 25개구를 전담하는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4개소에 의해 운영
  - 동대문패션지원센터(도심권), G밸리패션지원센터(남부권), 중랑패션지원센터(동북권), 서북권패션지원센터(서북권) 등
  - '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목표는 206개사로, 도심권 65개사, 동북권 83개사, 서북권 15개사, 남부권 43개사를 지원할 예정
- '16년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335개사에 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7년에는 274개사에 7.8억원을 지원
  - 조명기구, 흡입기,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배선정리, 자동재단테이블, 보일러교체, 공조기, 환풍기, 청소기, 누전차단기, 바큇보드, 스팀아이롱, 무소음모터, 콤프래셔, 배관, 접이식 재단판 등 지원

□ 수혜자들은 사업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6%(도심권)~94%(서북권)의 만족비율로 나타남
  - '16년에는 92%의 높은 만족비율을 보임
  - '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조사 결과 만족비율 86%,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입찰 또는 복수 견적에 의한 시공, 독점적 시공업체 행태 개선 등을 요구
- ※ 보다 자세한 현황과악 및 문제점 도출 등을 위해 '17년 사업 수혜자, 근로자, 검수업체 등을 표본으로 하여 FGI 실시



### 3.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도출

##### ○ 작업환경개선사업 공급측면 문제점

- 지원내용 및 조건에 대한 수요자 불만족 : 부족한 지원금액, 참여 제한기간, 지원품목, 선지불방식, 지역 간 경쟁률 차별 등
- 지원시기의 집중 :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하지 않고 9월 이후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생산성에 반영하기 어려움
- 관리체계 미흡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재하며,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

##### ○ 작업환경개선사업 공급측면 문제점

- 지나치게 높은 설치업체 의존도 : 설치업체에 의해 사업이 좌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며, 업체 간 시공단가의 차이, 업체가 제안한 품목을 선택해야 하는 사업, 일부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 등
- 봉제업체들의 무지 : 작업환경개선사업 자체에 대한 무지, 홍보부족으로 지인을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 지원된 설비·장비 관리미흡 : 설치장비인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검수 후 지원품목을 재판매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는 상황

#### □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방향

##### ○ 작업환경개선사업 체계성 확립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정형화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설치업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충실성 강화

-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수혜자인 봉제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점, 既지원된 설비나 장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 또한 해결될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충실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제고

- 봉제업체들은 부족한 지원금액, 제한기간, 품목, 선지불방식, 지역간 경쟁률 차별, 지원시기 등 현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내용 및 조건, 방법 등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상황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확충이 필요

## 4. 작업환경개선사업 운영방식 개선방안

### □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수준의 업무 매뉴얼 마련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지원설비품목을 설정하여 시행”한다는 점 등에서 작업환경개선사업과 유사
- 작업환경개선사업 또한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운영규정 및 규칙(신청 등 서식 포함), 품목지원기준, 설치업체관리, 프로그램매뉴얼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매뉴얼 마련 필요

### ○ 지원업체 DB구축을 통한 지원이력 관리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며, 매년 300여 곳의 사업장이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B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매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 : 업체 및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금액, 지원품목, 지원품목별 단가, 설치(시공)업체,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 포함
- 본 사업은 일정기간(3년) 경과 후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DB를 바탕으로 지원에 대한 이력관리 또한 필요

## □ 서비스 제공과정의 신뢰성 제고

### ○ 작업환경개선사업 설치업체 'POOL제도' 운영

- 사업에 참여하는 설치업체 'Pool' 제도를 통해 봉제업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설치업체 간 건강한 경쟁을 유도
- 참여희망 설치업체들은 작업환경개선사업 사이트에 설치품목에 대한 모델, 품목별 가격 등을 사전에 제시하고, 정보를 확인한 봉제업체들에게 설치업체 선택권 부여

### ○ 컨설팅과 연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설치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불필요한 품목까지 설치하는 비효율적 운영사례 발생
-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봉제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할 필요

○ 참여 설치업체 평가제도 도입

- 작업환경개선사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설치업체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
- 사업에 참여하는 설치업체를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좋은 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배제 등 패널티 부과

□ 다양한 수요자에 지원수혜 기회 제공

○ 오프라인 홍보 확대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예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봉제업체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상황
- 현수막, 브로셔, 포스터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확충 필요

○ 온라인 홍보 확대

- 작업환경개선사업 인지도 제고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 실시할 필요
- DB를 활용한 메시지 전송방식이 효과적, 다만, 아직 DB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작업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APP 등 온라인 홍보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지원품목 재편

○ 참여저조·부적합 품목 재검토

-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은 수요자의 요구, 필요성에 따라 조정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수 또한 확대되는 추세

\* '16년 12개 품목에서 '17년 18개 품목으로 추가됨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현재 18개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 중 수요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품목 재검토 필요
- FGI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①폐수 회수용 배관(건물주 소관), ②바큘다이(한번 설치하고 서보모터만 교체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③이동형집진기(화재 위험성이 높음), ④갓등, 십자등(LED로 바뀌는 추세) 등으로 나타남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요구 품목 반영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품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규품목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8년 사업은 23개 품목추진을 제안

[’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안)]

구분	품목	비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덕트	
	흡입기	
	이동형 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신규추가
	냉·난방기	신규추가
	청소기	
	LED등	
	삼파장등	
	조명기구(갓등, 십자등)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	순환식 보일러	
	바큘다이	
	서보 모터	
	레이스웨이	
	자동재 단테이블	
	아이롱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의자	신규추가
	누전 차단기	
	노후 배선 정리	
	배전함 설치	
	곤도라	신규추가
	폐수 회수용 배관	
수납다이		신규추가
<b>품목수</b>		<b>23개</b>

\* 품목에 대한 결과는 FGI를 통해 도출되었으므로, 재단에서 검토 후 재설계 필요

□ 도덕적 해이방지(지원의 지속성 확보)

- 지원품목 표식 부착, RFID Tag 등을 통한 임의처리 방지
  - 지원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원된 제품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부적절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지원된 품목에 “본 제품은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지원된 품목임”이라는 표식을 부착하여 임의처리에 대한 심리적 보호막 구축
  - RFID 등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

□ 예산확충 및 지원조건 완화

-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확대
  -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은 200여개 업체에 업체당 3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18년 목표기준)
  - 보다 많은 업체를 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임
  - 따라서 예산의 확충을 통해 연간 지원업체의 수를 늘리고, 업체당 지원금액 또한 물가상승 수준에서 확대할 필요
- 지원과정 편의성 제고
  -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과정이 지원금액에 비해 복잡하고 노력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참여제한 기한의 단축, 선지급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지원과정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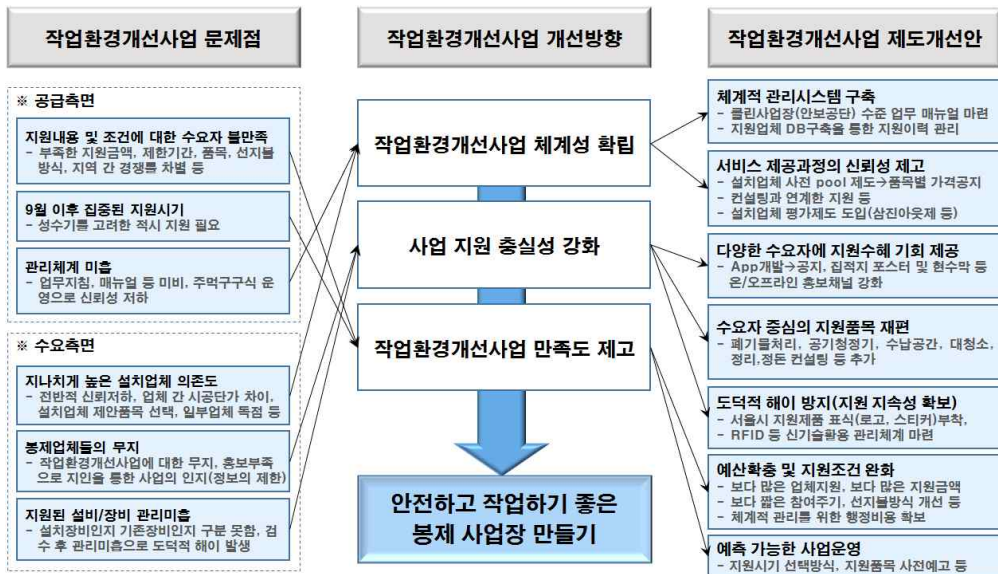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수요자 예측 가능성 제고

○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참여 유도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하여 품목, 지원규모, 제도대선 방안 등 검토를 거쳐 실제로는 가을에 집행되는 구조
- 봉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는 지원될 품목, 집행될 시기, 공고·선정 등 연중 지원사업 추진일정 등으로 정보제공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수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노력 필요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개선방향-제도개선안]



5.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단계적 접근

-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증가와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운영 필요

○ 단기('18~'19)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수준의 업무 매뉴얼 마련, 지원업체 DB 구축을 통한 지원이력 관리, 참여 설치업체 평가제도 도입, 오프라인 홍보 확대, 참여저조·부적합 품목 제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요구 품목 반영, 지원품목 표식 부착, 지원과정 편의성 제고,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참여 유도 등

○ 중장기('20~)적으로 해결해야할 개선방안

- 작업환경개선사업 설치업체 'POOL제도' 운영, 컨설팅과 연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온라인 홍보 확대, RFID Tag 등을 통한 임의처리 방지,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확대 등

□ 제도개선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행정예산 확충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연 7~8억원 수준의 예산규모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크게 발생시키기 어려운 사업임

- 그러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노력, 비용 등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므로 행정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규모도 커지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수혜자의 불만족의 원인은 연간 소수의 수혜업체(2% 수준), 3년의 참여제한 기간, 소규모 지원금액(300만원) 등 사업의 예산과 직결된 부분

-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여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규모를 제고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목 차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 목 차 】

### [요 약]

<b>I. 서 론</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b>II. 작업환경개선사업 현황</b> .....	<b>7</b>
1. 사업의 추진경과 .....	9
2. 사업의 추진현황 및 효과 .....	10
3. 수혜자 만족도 현황 .....	13
<b>III.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b> .....	<b>17</b>
1.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FGI 실시 .....	19
2.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도출 .....	26
3.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방향 .....	28
<b>IV. 제도의 개선방안</b> .....	<b>31</b>
1. 작업환경개선사업 체계성 확립 .....	33
1)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33
2) 서비스 제공과정 신뢰성 제고 .....	36
2. 사업지원의 충실성 강화 .....	39
1) 다양한 수요자에 지원수혜 기회제공 .....	39
2) 수요자 중심의 지원품목 재편 .....	40
3) 도덕적 해이 방지 .....	44

3.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제고 .....	45
1) 예산확충 및 지원조건 완화 .....	45
2) 수요자 예측 가능성 제고 .....	46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49

### 【 표 목 차 】

<표 2-1> 20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결과 .....	16
<표 4-1>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 변화('16→'17) .....	41
<표 4-2> '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안) .....	43

###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	5
[그림 3-1]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방향 도출(안) .....	29
[그림 4-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개요 .....	33
[그림 4-2] 지원품목 표시부착 및 RFID TAG 예시 .....	44
[그림 4-4]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개선방향-제도개선안 .....	48

**제1장**

**서론**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영세 의류제조 업체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의류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
  - 서울시를 크게 4개 권역(남부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등)으로 구분하고,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기존의 열악한 제조업 이미지에서 탈피
  - 의류제조업(봉제) 근로자의 근로질병 예방을 고려한 품목지원과 적극적 홍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중
- 최근 영세 봉제업체의 생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검토 필요
  - 중국·베트남·미얀마 등 대규모 업체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하청구조인 국내 중소규모의 의류제조업체 일감 감소 및 생산성 하락
  -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제조업체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영세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수준
  -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의류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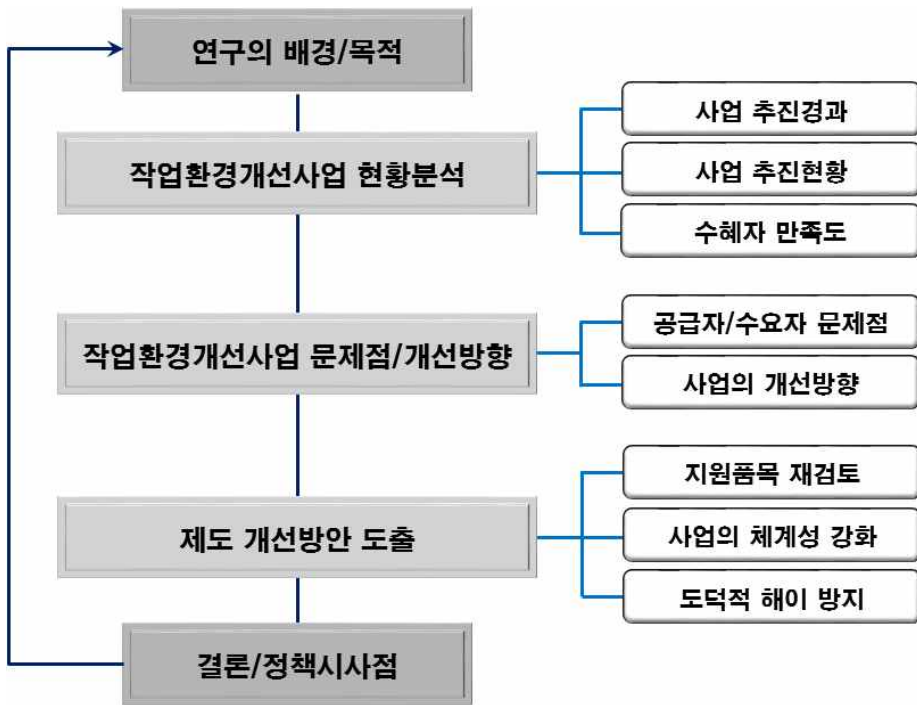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연구목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사업의 추진현황 및 효과, 수요자를 기반으로 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지원품목 재검토, 사업의 체계성 강화, 도덕적 해이방지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1단계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현황 분석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 사업의 효과, 사업의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도 등 사업의 현황을 분석
  - 2단계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사업을 수혜받은 의류제조업체들의 수요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도출
    - 위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
  - 3단계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개선방안 마련
    -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품목의 차원, 사업의 운영체계 차원, 사업의 부정요소 제거 차원 등에서 접근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 주요 연구방법

- 정책자료 및 문헌분석
  - 작업환경개선사업 관련 정책자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및 조례, 사업 집행자료 및 만족도분석 결과 등을 활용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자 대상 FGI 실시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자(사업주·근로자)들의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사업의 효과 및 정책 개선방향 등을 도출
- 전문가 의견수렴
  - 학계, 연구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제2장

# 작업환경개선사업 현황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II. 작업환경개선사업 현황

### 1. 사업의 추진경과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4.5) 및 시행('15.5)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봉제업(의류제조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업종’에 포함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분류기호 14)
- 법 제19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또한,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
  -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 등
  - 사업에 대한 수요·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원조건 및 한도를 정함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서울시는 법에 근거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15.10~) 중
  - 법 제19조를 이어받아 조례 제14조에서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2. 사업의 추진현황 및 효과

- 2018년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서울 25개구를 전담하는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4개소에 의해 운영됨
  - 동대문패션지원센터(도심권), G밸리패션지원센터(남부권), 중랑패션지원센터(동북권), 서북권패션지원센터(서북권) 등
  - 거점별 센터를 통해 공동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할 예정
    - 20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목표는 206개사로, 도심권 65개사, 동북권 83개사, 서북권 15개사, 남부권 43개사를 지원할 예정
    - 거점별 패션지원센터는 작업환경개선사업 외에 장비임대 지원사업 및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강화 및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

□ 2015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추진결과(187개사, 4.8억원)

- 닥트, 보일러, 청소기, 흡입기, 환풍기, 자동재단테이블, 삼파장 조명, 그 외 조명기구, 레이스 웨이, 누전차단기, 배선정리, 배전함설치 등 12종의 품목이 지원됨
  - 서북권 : 30개사에 80,240,400원 보조금 지원
  - 도심권 : 49개사에 126,674,346원 보조금 지원
  - 동북권 : 57개사에 140,817,152원 보조금 지원
  - 서울권 : 51개사에 132,930,910원 보조금 지원

□ 2016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추진결과(335개사, 9.2억원)

- 닥트, 보일러, 청소기, 흡입기, 환풍기, 자동재단테이블, 삼파장 조명, 그 외 조명기구, 레이스 웨이, 누전차단기, 배선정리, 배전함설치 등 12종의 품목이 지원됨
  - 서북권 : 132개사에 375,774,470원 보조금 지원
  - 남부권 : 31개사에 85,969,500원 보조금 지원
  - 도심권 : 52개사에 142,600,800원 보조금 지원
  - 동부권 : 61개사에 156,905,250원 보조금 지원
  - 서울권 : 59개사에 163,519,054원 보조금 지원

□ 20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추진결과(274개사, 7.8억원)

- 닥트, 흡입기, 이동형집진기, 환풍기, 청소기, LED등, 삼파장 등, 그 외 조명기구, 순환식보일러, 폐수회수용 배관, 바큇다이, 서보모터, 레이스웨이, 자동재단테이블, 아이롱, 누전차단기, 노후배선정리, 배전함설치 등 18종의 품목이 지원됨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서북권 : 44개사에 125,058,830원 보조금 지원
- 남부권 : 49개사에 145,967,700원 보조금 지원
- 도심권 : 111개사에 305,796,750원 보조금 지원
- 동부권 : 70개사에 203,740,000원 보조금 지원

□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영세한 봉제업체의 에너지절감 및 조도개선, 안전 및 화재 위험요인 제거, 작업자 근무여건 개선, 사기 진작 등의 효과가 기대

○ 작업장 내 소비에너지 절감 및 조도 개선

- 노후 보일러를 최신 순환보일러로 교체하여 15% 상당의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전형 삼파장 조명으로 교체하여 10% 상당의 에너지 절감
-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30% 상당의 에너지 절감
- 부분작업대 조명 추가 설치

○ 작업장 내 안전 및 화재 위험요인 제거

- 배전함 신규 설치 및 누전차단기 교체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위험 예방
- 노후 배선정리 및 콘센트 교체로 화재위험 예방
- 보일러 교체로 작업자 화상 위험 예방

○ 작업자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 환풍기 및 흡입기 설치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시켜 작업자 호흡기 질환 예방

- 공업용 청소기 설치로 작업장 내 청결 유지
- 공기 순환장치 설치로 실내 맑은 공기 유입
- 자동제단테이블 교체 및 설치로 작업자 근로환경 개선
- 영세 사업주들의 사기 진작
  - 작업장 개선을 통한 경영마인드 개선과 직원처우 개선의 계기
  - 기술력을 갖춘 봉제업체의 향후 사업전개에 대한 자신감, 기대감 함양
  - 사전 비수기를 고려한 사업 전개로 업체 지원 극대화 등

### 3. 수혜자 만족도 현황<sup>1)</sup>

#### □ 2015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서북·도심권)

- 서북권 : 11개 업체 응답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만족비율은 94%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
    - \* 매우만족 31%, 만족 63%, 보통 6%, 불만족 0%
  - 봉제업체들은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증대(53%), 쾌적한 환경조성(34%), 근무자 질환 발생요인 감소(13%)의 순으로 내용적 만족
  - 봉제업체들은 작업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공조기, LED 등 조명기구, 청소기, 환풍기, 노후 보일러 교체, 흡입기, 누전차단기 등으로 응답

---

1)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각년도 실시한 조사결과를 재정리함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 도심권 : 29개 업체 응답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만족비율은 86%로 만족도는 높은 수준
  - \* 매우만족 65%, 만족 21%, 보통 14%, 불만족 0%
- 봉제업체들은 쾌적한 환경조성(50%),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증대(38%), 작업장 내 위험요소 제거(6%), 근무자 질환 발생요인 감소(3%)의 순으로 내용적 만족
  - \* 반면, 불만족한 내용으로는 공사일정 미준수, 지원품목 부족, 지원금 부족, 공사하자 발생, 지원기간 부적합 등이 나타남
- 사업에 대한 개선내용으로 지원업체 선정방식 개선, 다양한 품목 추가 및 지원 방식 개선, 공사비용 선지급 방식개선, 보유노후 장비 수리비 지원 등을 요구

## □ 2016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전권역 221개)

- 2015년에 이어 작업환경개선사업은 높은 만족수준을 유지
  - 매우만족 62%, 만족 30% 등으로 92%의 만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은 7%, 불만족은 1%로 나타남
- 봉제업체들은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된 점을 특히 만족함
  - 쾌적한 환경조성(42%), 작업장 내 위험요소 제거(24%),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증대(23%), 근무자 질환 발생요인 감소(11%)의 순으로 내용적 만족
- 개선해야 할 점으로 홍보부족(37%), 업체당 지원금 증액(26%), 지원기간 부적합(21%), 지원품목 항목 추가(1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홍보확대와 관련하여 홍보관련 인쇄물 제작(포스터, 현수막, 신청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기존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SMS로 발송하여 다른 봉제업체에 간접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20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도심권 104개)

- 만족비율 86%로 2016년 만족비율(92%)에 비해 다소 낮아짐
  - 매우만족 16%, 만족 70%, 보통 13%, 불만족 1% 등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문항별로 보면,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임
  -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39.4%, 만족 59.6%의 높은 만족을 보임
  - “내가 꼭 필요로 하던 품목을 지원 받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32.7%, 만족 64.4%의 높은 만족을 보임
  - “재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3.8%, 만족 83.7%의 높은 만족을 보임
  - “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절한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응답은 없었으며, 만족 59.6%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지원금 지급방식은 적절한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8.7%, 만족 56.7%의 만족도를 보임
  -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11.5%, 만족 80.8%의 높은 만족을 보임
  - “지인에게 본 지원사업을 권하고 싶은가”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만족 13.5%, 만족 86.5%의 높은 만족을 보임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표 2-1> 20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결과

(단위 : 명, 점)

문항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점
본 지원사업이 귀하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	-	1	62	41	4.38
내가 꼭 필요로 하던 품목을 지원받았다.	-	-	3	67	34	4.30
재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들이 적절하다.	-	1	12	87	4	3.90
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적절하다.	-	2	40	62	-	3.58
지원금 지급방식은 적절하다.	-	2	34	59	9	3.72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8	84	12	4.04
지인에게 본 지원사업을 권하고 싶다.	-	-	-	90	14	4.13

-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입찰 또는 복수 견적에 의한 시공, 독점적 시공업체 행태 개선 등을 요구함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자들은 입찰 또는 복수 견적에 의한 시공, 독점적 시공 업체 행태 개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필요, 지원금 확대, 선지급 부담감 해소, 봉제 외 일반 품목으로 확대 등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제3장

#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Ⅲ.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FGI 실시

##### □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개요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효과 및 정책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해 FGI 실시
- FGI는 서울시 4개 권역별 '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를 받은 업체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모집단 : 도심권 111개사, 동북권 70개사, 서북권 44개사, 남부권 49개사, '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검수업체 등
  - 표본 : 대표 16명(권역별 4명) 이상, 종사자 약 8명(권역별 2명), 검수업체 담당자 등 총 25명 이상으로 설계
  - 구성 : 권역 내 근무환경 및 영업실적이 양호한 업체와 열악한 업체를 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인터뷰 결과(의견)의 Bias를 방지
- 일정 및 장소 : '18년 5월 4일(금)과 8일(화) 2틀 간 거점별 패션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인터뷰 실시
  - 서북권(중랑패션지원센터, '18. 5. 4, 오전), 도심권(동대문패션지원센터, '18. 5. 4, 오후), 서북권(서북권패션지원센터 비즈니스쇼룸, '18. 5. 8, 오전), 남부권(G밸리패션지원센터, '18. 5. 8, 오후) 등
  - 종사자 인터뷰는 회의시간 할애의 어려움으로 인해 FGI에 참여한 대표들의 업체를 방문하여 개별적 인터뷰 수행(5월 3째주)
  - '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의 검수업체와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



□ 주요 인터뷰 내용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 지원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지원과정에서 행정에 관한 문제점 등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 : 재무적/비재무적 효과, 만족여부 등
- '18년 지원품목 및 품목별 시장가격 도출 : 현행 18개 지원품목의 적정성, 각 품목별 적정 시장가격 확인방안 등
-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 정책 개선방안, 신규품목 도출 등

□ FGI 결과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대표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 설치업체에서 지원 받은 제품을 설치 후, 기존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져가려 해서 설치업체와 갈등 발생한 사례
  - 홍보가 부족하여 필요한 업체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 발생 : 지원 받는 사람들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음
  - 설치업체 선정기준이 없어 찾아온 설치업체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지원금액(3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최소 500만원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필요한 품목을 조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업자에게 맡겨서 진행하다 보니 필요없는 품목이 생기는 문제점 발생
  - 지원받은 제품이 관리가 안됨 : 실사확인(검수) 후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 필요

### Ⅲ.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7년의 경우 9월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필요품목 선택 및 설치작업에 생산과 관련된 시기적인 어려움을 겪음
  - 선지급 관련 애로 : 선 지불 후 지원금을 지급 방식(평균 5주 후 입금)이므로 현금순환이 중요한 공장에선 부담이 큼
  - 일부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가격의 책정이 정확히 된 것인지 의심스러움
  - 설치업체에게 손해가 집중 : 봉제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설치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모르겠음
  - 1회 지원 후 3년의 참가제한은 너무 길기 때문에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불필요한 제품도 교체하게 됨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
-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설치된 제품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스러우나, 적은 지원금액으로 아쉬움
  -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작업능률이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이 매출이나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 설치하는 업체 선정 시 투명성 확보가 필요
  - 공장의 크기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금 지급 : 실수요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원해줄 필요
  - 품목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 지원금액 규모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작업능력향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만큼, 생산제품의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지원 후 참가제한 기간을 2년으로 줄임으로써 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할 필요
  - 선지급으로 인한 공장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인 자부담금만 지급하고 재단에서 기관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필요
  - 설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원제품 선택을 해야 함
  - 환경개선사업하기 1~2년 전에 미리 공지를 하여 어떤 품목을 지원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음
  - 공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사업주가 제품을 선택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
  - 투명성을 위해 설치업체를 입찰하는 방식이 필요함
- 작업환경개선사업 불필요한 품목과 추가가 필요한 품목
- 불필요한 품목 : 폐수 회수용 배관(건물주 소관), 바큘다이(한번 설치하고 서보모터만 교체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동형집진기(화재 위험성이 높음), 갓등, 십자등(LED로 바뀌는 추세) 등
  - 필요한 품목 : 미싱기(생산품목), 산업폐기물 처리봉투,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수납공간(다이), 내부 대청소(인테리어 및 정리정돈 컨설팅 포함), 곤도라, 설치제품 수리, 작업의자 등

## □ FGI 결과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근로자

- 개선된 작업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근로자의 경우 설치·교체된 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워 함
  - 특히 환풍기 등 시설을 통해 분진이 많이 줄어들고 조명기구(LED)의 설치(교체)로 실내가 밝아져 작업하기에 수월해짐

### Ⅲ.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근로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봉제업체의 경우 먼지가 많아 공기의 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공기정화와 관련된 개선이 보다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가 공기정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 인터뷰가 이루어진 모든 작업장 근로자들이 공기정화를 가장 필요한 작업환경개선사업 품목으로 요구

- A업체 : 공기청정기, 후황, 내부청소 등을 필요로 함
- B업체 : 전등 및 먼지제거를 필요로 함
- C업체 : 청소기, 공기청정기, 휴식공간, 의자, 책상 등을 필요로 함
- D업체 : 집진기를 가장 필요로 함

#### □ FGI 결과 - 작업환경개선사업 검수 담당자

#### ○ 선지급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느껴짐

- 지원대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선지급 후정산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

#### ○ 지원사업에 대한 무지, 오해로 인한 독점적 시공업체 활개

- 각 지역별 봉제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지원사업에 대해 알지 못함
- 또는 시공업체나 임대업체가 먼저 접근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 줄 테니 교체하라”는 식의 영업으로 봉제 업체는 간혹 정작 필요한 물품이 아닌 시공업체의 주요 취급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음
- 특정 지역 봉제협회에서 시공업체를 특정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그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시공업체에서 시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

- 봉제업체는 추후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봉제협회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음
- 대부분 봉제업체들은 정작 본인 돈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시공업체에 끌려가거나, 봉제 협회의 권유에 의해 끌려가는 형태임
- 그 결과 시공단가 상승, 부실 또는 지원 받는 업체마다 동일 품목의 시공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 홍보의 부족

- 봉제협회 가입자나 연관된 업체 외에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름
- 봉제협회를 통한 홍보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되는 것 같으므로 직접적인 홍보수단 필요
- 시공업체들의 영업 탓에 재단에서의 연락도 영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단과 시공업체 간에 연관에 대해 오해하기도 함

### ○ 체계적 업무처리 미흡

- 현재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17년도 이전까지는 업무처리가 기준이 없어 비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7년 또한 최대한 일관된 업무처리를 하려 했으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문제 발생 시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음
- 매년 일관된 기준으로 사업 수행이 필요함 : 매년 기준이나 품목이나 일정 등이 바뀌다 보니 봉제업체들도 어려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받아야할 업체들이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 발생

### ○ 설치장비 진위여부 확인 어려움

### Ⅲ.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설치한 장비가 실제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인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는 방법이 유일

## 2.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 도출

### □ 작업환경개선사업 공급측면의 문제점

- 지원조건 및 내용에서 나타난 수혜업체들의 불만족 요인
  - 수혜업체들은 열악한 봉제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에 300만원의 금액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수혜 후 참가제한기간인 3년은 당해연도 불필요한 지원까지 유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음
  - 설치업체에 봉제업체가 비용을 先지불하고 검수 후 정산하는 방식(평균 5주 소요)은 현금흐름이 중요한 봉제업체들에게 매우 부담
  -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품목은 부재하고, 불필요한 품목이 존재
  - 서울시 내 지역(권역) 간 경쟁률 격차 심화 : 일부 지역에서는 1:1의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타 지역에서는 10:1의 경쟁률이 나타남
-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원시기의 문제
  - 수혜업체가 실제 지원을 받는 시기(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9월 이후에 집중됨
  - 일감이 늘어나는 성수기에 앞선 작업환경개선이 보다 필요한 시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장이 바쁘게 움직이는 성수기에 설치작업이 이루어져 작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발생
- 작업환경개선사업 관리체계의 미흡
  -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는데 한계
  - 수혜업체, 설치업체, 지원품목 등 선정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전반적으로 신뢰성 저하

□ 작업환경개선사업 수요측면의 문제점

-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높은 설치업체 의존도
  - 봉제업체들의 설치업체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공급되는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져 있음
  - 설치업체에 따라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들을 봉제업체들은 선정과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품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아 지원금 300만원에 대한 설계를 설치업체에 맡기는 상황
  - 설치업체의 선택은 대부분 구전에 의한 것으로, 일부 설치업체에 작업의뢰가 집중되고 있음 : 독점적 시공업체 활개
  - 본 작업환경개선사업이 봉제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치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수준까지 신뢰 저하되어 있음
- 작업환경개선사업 자체에 대한 봉제업체들의 무지
  - 봉제협회(지역 봉제조합 또는 의류산업협회로 추정)에 가입한 업체나 관련된 업체 외에는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음
  -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주변 지인 소개로 사업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아는 사람만 지원을 받는 경향 발생
- 설치된 설비·장비의 관리 미흡
  - 설치한 장비가 실제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인지 기준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세금계산서 확인)
  - 설치 및 검수 후 장비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실제 확인은 불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



### 3.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방향

#### □ 작업환경개선사업 체계성 확립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정형화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설치업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설치업체 선정 및 실행관리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서비스 제공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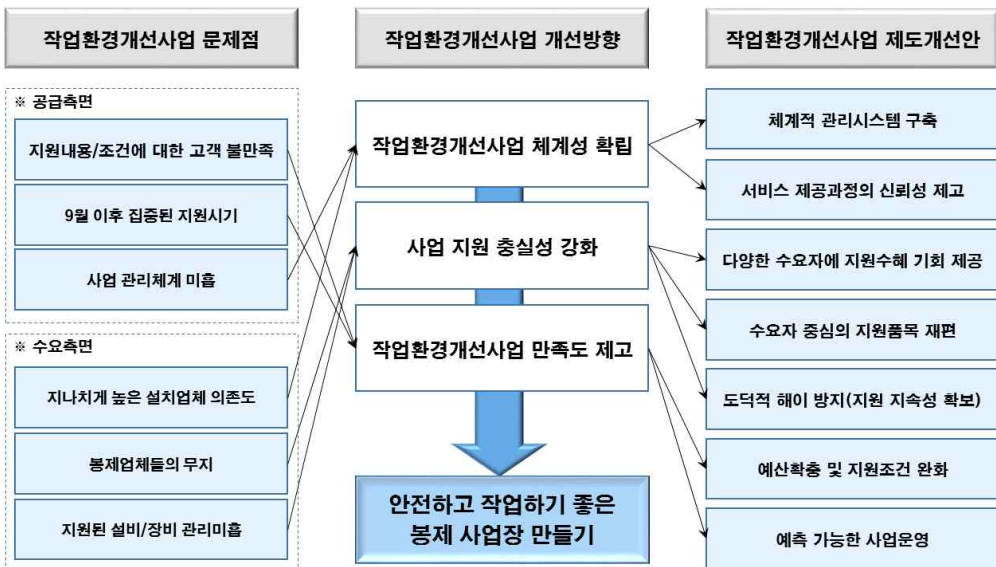
#### □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충실성 강화

- 또한 본 사업은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수혜자인 봉제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점, 既지원된 설비나 장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 또한 해결되어야 함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충실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지원수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 필요
  -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18개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은 제외시키고, 사업의 취지(작업환경개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품목으로 재편된 필요
  - 본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된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마련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제고

- 봉제업체들은 부족한 지원금액, 제한기간, 품목, 선지불방식, 지역 간 경쟁률 차별, 지원시기 등 현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내용 및 조건, 방법 등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상황
  - 지원정책의 목적은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데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수반될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확충 필요
  - 현재 공급되는 사업규모로는 효과적인 성과와 수혜자의 만족을 얻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의 증대와 함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충 및 지원조건 개선 필요
  - 봉제업체들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혜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선제적 전달 필요

[그림 3-1]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선방향 도출(안)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제4장

### 제도의 개선방안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IV. 제도의 개선방안

### 1. 작업환경개선사업 체계성 확립

#### 1)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수준의 업무 매뉴얼 마련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사업임

[그림 4-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개요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이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소규모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등
-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http://www.kosha.or.kr), 1544-3088)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의 분야에 대해 지원('18년 예산 685억원)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50명 미만의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추락방지 안전시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클린사업장 인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의 분야에 대해 지원조건을 달리하고 있음
  - 클린사업장 인정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추락방지 안전시설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액은 사업장·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
  - 지원비율은 공단 판단금액의 50~70%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짐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지원설비품목을 설정하여 시행”한다는 점 등에서 작업환경개선사업과 유사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안전상의 조치품목, 작업환경 개선품목, 작업공정 개선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호흡기 질환 예방, 조도개선, 에너지 절감, 작업능률 향상, 화재예방 등으로 품목을 구분하여 지원
- 작업환경개선사업과 달리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업무지침, 매뉴얼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재정지원사업 업무편람]을 책자로 발간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노력을 하고 있음
  - 편람에는 운영규정 및 규칙, 별지·별표모음, 업무수행일반기준, 품목지원기준, 안전조치기준, 품목등록 및 가격산정, 기존설비 폐기기준, 환수 및 처리절차, 공급업체 등록제도, 인정패발급관리, 위험성평가 수행, 공개구매시스템, 용자대여약정서, 근골격계부담 작업, 프로그램매뉴얼, 건설클린사업, 고소작업대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음
- 작업환경개선사업 또한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
  - 기본적으로 운영규정 및 규칙(신청 등 서식 포함), 품목지원기준, 설치업체관리, 프로그램매뉴얼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매뉴얼 마련 필요

□ 지원업체 DB구축을 통한 지원이력 관리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며, 매년 300여 곳의 사업장이 수혜를 받고 있음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업체들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권역별 담당자에 따라 지원현황에 대한 수집정보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
  - DB에는 기본적으로 업체 및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대표 주민등록번호), 지원금액, 지원품목(모델명 포함), 지원품목별 단가, 설치(시공)업체,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매년 동일한 포맷으로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
- 본 사업은 일정기간(3년) 경과 후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DB를 바탕으로 지원에 대한 이력관리 또한 필요
  - 지원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 지원품목 수명관리, 지원품목 추세, 특정기업 쏠림지원 예방 등이 실현될 수 있음

## 2) 서비스 제공과정의 신뢰성 제고

### □ 작업환경개선사업 설치업체 'POOL제도' 운영

- 수요측면에서 작업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사업에 참여하는 설치업체 신뢰와 관련된 사항임
  - 본 사업에 이해도가 낮은 봉제업체들이 설치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설치업체들의 의도대로 품목, 가격 등이 결정되는 상황
  - 사업이 거둬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설치업체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으며, 이는 사업, 재단, 서울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설치업체 'Pool' 제도를 통해 업체 간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

#### IV. 제도의 개선방안

- 지역별로 소수의 설치업체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고품질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봉제업체들의 설치업체·품목의 선택폭 한계
-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시 내 지역별 섹터를 없애고, 모든 설치업체가 서울지역 어디든 참여하도록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
- 참여희망 설치업체들은 작업환경개선사업 사이트에 설치품목에 대한 모델, 품목별 가격 등을 사전에 제시하고, 정보를 확인한 봉제업체들에게 설치업체 선택권 부여
- 재단은 차년도 작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설치업체들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이들 리스트를 봉제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작업환경개선사업 사이트 운영 필요)
-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 품목에 대한 모델, 가격 등 제공 제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함
- 봉제업체들은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정보, 품목의 모델, 가격, 추가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설치업체를 선택·매칭하여 사업 신청

#### □ 컨설팅과 연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설치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불필요한 품목까지 설치하는 비효율적 운영사례 발생
- 300만원이라는 지원한도를 채우기 위해 설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수익성이 높은 품목)의 설치를 봉제업체들에게 권유
- 지원한도를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봉제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할 필요
- 작업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동선, 청결하고 안전한 사업장 등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봉제업체들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품목을 선택하고, 사업 신청 시 컨설팅 결과를 첨부
- 재단은 컨설팅 결과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설치품목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
- 컨설턴트는 검수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등 작업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

## □ 참여 설치업체 평가제도 도입

- 작업환경개선사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설치업체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
  - 기존 설치업체 중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 불필요한 품목의 설치를 강요하는 업체, 신청-설치-완료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 설치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업체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높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작업환경개선사업 운영
- 사업에 참여하는 설치업체를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좋은 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배제 등 패널티 부과
  - 만족도, 불만민원 건수, 서비스품질, 행정처분여부 등으로 평가하되, 결과를 점수화하여 차년도 사업참여에 반영
  -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단에 문의되는 봉제업체에 우선적으로 소개, 우수사례 선정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예 : 하위 5개 등)는 참여한도를 배정(예 : 최대 3곳으로 횟수 제한 등)하고, 민원·행정처분 등 부정적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는 설치업체는 사업참여에서 배제(삼진아웃제 등)

## 2. 사업 지원의 충실성 강화

### 1) 다양한 수요자에 지원수혜 기회 제공

#### □ 오프라인 홍보 확대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예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봉제업체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상황
  - 수혜업체들은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심지어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봉제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할 필요
- 현수막, 브로셔, 포스터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확충
  - 봉제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골목이나 지역에 다수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상시 노출
  - 포스터를 제작하여 집적지 골목입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 승·하차 공간에 부착
  - 휴대용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봉제업체들이 자주 찾는 지역주민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

#### □ 온라인 홍보 확대

- 작업환경개선사업 인지도 제고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한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 실시할 필요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DB를 활용한 메시지 전송방식이 효과적, 다만, 아직 DB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
  - 그동안 수혜를 받은 업체들의 연락처 등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작업환경개선사업 미래수요(비수혜업체)에 대한 정보는 미보유
  - 따라서, 서울시 내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게 온라인으로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작업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APP 등 온라인 홍보방안 마련
  - 작업환경개선사업 전용 사이트(안)를 활용하여 배너광고, 공지사항 등 홍보 실시
  - 작업환경개선사업 홍보전용 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실시
    - \* 홍보용 app개발 평균비용 500만원 미만으로 부담은 적음
  - 현수막, 포스터, 브로셔에 작업환경개선사업 전용 app에 대한 홍보 동시에 실시

## 2) 수요자 중심의 지원품목 재편

### □ 참여저조·부적합 품목 제외

-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은 수요자의 요구, 필요성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수 또한 확대되는 추세
  - '16년 쾌적한 작업장 환경조성, 노후전기 설비 및 조명개선에서 '17년에는 호흡기질환 예방, 조도개선, 에너지절감, 작업능력향상, 화재예방으로 개편됨
  - '16년 12개 품목에서 '17년 18개 품목으로 추가됨

<표 4-1>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 변화('16 → '17)

< 2016년 지원품목 >

< 2017년 지원품목 >

구분	품목	구분	품목
쾌적한 작업장 환경 조성	공조기(DUCT)	호흡기 질환 예방	DUCT
	보일러 교체		흡입기
	청소기		이동형 집진기
	흡입기		환풍기
	환풍기	청소기	
	자동재단 테이블	조도개선	LED등
노후 전기설비 및 조명 개선	삼파장 조명교체		삼파장등
	조명기구(갓등, 십자등)		조명기구(갓등, 십자등)
	레이스웨이	에너지 절감	순환식 보일러
	누전차단기		폐수 회수용 배관
	배선정리	작업능력 향상	바큘다이
	배선함 설치		서보 모터
품목 수	12개		레이스웨이
		자동재단테이블	
화재예방	품목 수	아이롱	
		누전 차단기	
		노후 배선 정리	
품목 수	18개	배전함 설치	

- 현재 18개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 중 수요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품목 개편 시 재검토 필요
  - 불필요한 제품이 리스트로 남아있을 경우 설치업체들의 무리한 추가설치 요구에 응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 FGI를 통해 도출된 수요빈도가 저조한 품목은 ①폐수 회수용 배관(건물주 소관), ②바큘다이(한번 설치하고 서보모터만 교체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③이동형집진기(화재 위험성이 높음), ④갓등, 십자등(LED로 바뀌는 추세) 등으로 나타남
- ※ 다만, FGI에 참여한 업체들의 의견으로, 최근 지원된 모든 품목을 재단에서 확인하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 재검토 필요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참고> 2017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 평균 단가

구분	품목	단가(만원)
호흡기 질환 예방	닥트	10/PY
	흡입기	30
	이동형 집진기	50
	환풍기	20
	청소기	30
조도개선	LED등	5
	삼파장등	1.3
	조명기구(갓등, 십자등)	~5
에너지 절감	순환식 보일러	180~200(15kg)
	폐수 회수용 배관	5/개
작업능률 향상	바큘다이	120
	서보 모터	50
	레이스웨이	1/m
	자동재단테이블	20/m
	아이롱	10
화재예방	누전 차단기	5
	노후 배선 정리	0.5/m
	배전함 설치	150
<b>품목 수</b>	<b>18개</b>	

\* 단가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FGI를 통해 제시된 금액임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요구 품목 반영

○ 반면,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품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규품목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FGI를 통해 도출된 필요한 품목은 ①산업폐기물 처리봉투, ②냉·난방기, ③공기청정기, ④수납공간(다이), ⑤내부 대청소, ⑥정리정돈 컨설팅, ⑦곤도라, ⑧설치제품 수리, ⑨작업의자 등

#### IV. 제도의 개선방안

- 이 중 환경개선 현장검수가 불가한 제품수리, 산업 폐기물 처리봉투, 내부대청소, 정리정돈 컨설팅은 선정 품목 제외
- 불필요한 품목 재검토 및 요구되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23개 품목)

<표 4-2> '18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안)

구분	품목	비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닥트	
	흡입기	
	이동형 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신규추가
	냉·난방기	신규추가
	청소기	
	LED등	
	삼파장등	
	조명기구(갓등, 십자등)	
에너지적인 작업환경 조성	순환식 보일러	
	바쿰다이	
	서보 모터	
	레이스웨이	
	자동재단테이블	
	아이롱	
	작업의자	신규추가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	누전 차단기	
	노후 배선 정리	
	배전함 설치	
	곤도라	신규추가
	폐수 회수용 배관	
	수납다이	신규추가
<b>품목수</b>		<b>23개</b>

\* FGI에서는 생산품목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작업환경개선사업 취지품목으로 취합



### 3) 도덕적 해이방지(지원의 지속성 확보)

□ 지원품목 표식 부착, RFID Tag 등을 통한 임의처리 방지

- 지원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원된 제품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부적절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지원된 품목에 “본 제품은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지원된 품목임”이라는 표식을 부착하여 임의처리에 대한 심리적 보호막 구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저비용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임
- RFID 등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
  - 상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방법이지만, 임의처리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으며, 지원 이후에도 필요 시 확인 및 관리가 가능

[그림 4-2] 지원품목 표시부착 및 RFID TAG 예시



### 3. 작업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제고

#### 1) 예산확충 및 지원조건 완화

##### □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확대

- 현재 작업환경개선사업은 200여개 업체에 업체당 3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18년 목표기준)
  -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권역별 평균 50여개의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짐
  - 열악한 봉제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300여만원의 지원은 불만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보다 많은 업체를 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임
  - 서울시 내 10인 미만의 의류제조 봉제업체의 경우 1만여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여 업체(약 2%)의 지원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 또한,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봉제업체들은 지원금액(300만원)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으로, 약 500만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
  - 실제로 닥트, 배전함설치, 순환식보일러 등은 설치비용이 높아 300만원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예산의 확충을 통해 연간 지원업체의 수를 늘리고, 업체당 지원금액 또한 물가상승 수준에서 확대할 필요
  - 예산증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단계별로 지원업체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물가상승률('17년 기준 2.0%), 최저임금 상승(공임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매년 약 5% 수준 지원금액 증액 필요

□ 지원과정 편의성 제고

-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과정이 지원금액에 비해 복잡하고 노력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3년 참여제한, 300만원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 봉제업체들은 설치업체에 비용 선지급, 제비뽑기 방식의 선정 등 추가 행정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품목까지 설치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참여제한 기한의 단축, 선지급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지원과정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필요
  - 현재 3년 참여제한 기한을 2년 등으로 단축시켜 보다 많은 봉제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
  - 선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해 후불제를 설치업체 참여조건으로 하거나, 선지급 후 최대한 빨리 지원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단업무의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등 편의성 제공노력 필요
  - 봉제업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간소화를 위한 재단업무 process에 대한 효율화 컨설팅도 고려해볼 필요

## 2) 수요자 예측 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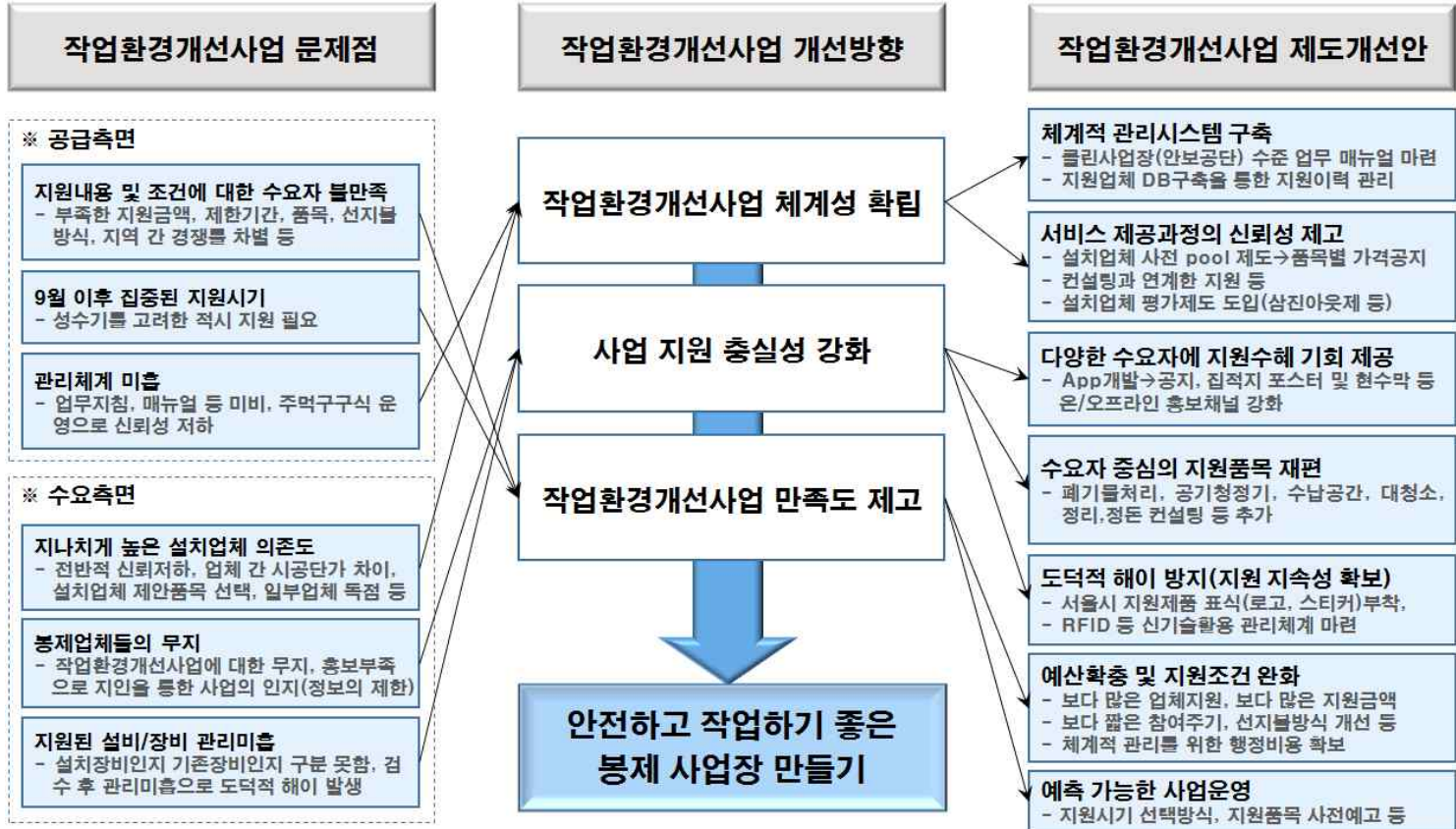
□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참여 유도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하여 품목, 지원규모, 제도 대선 방안 등 검토를 거쳐 실제로는 가을에 집행되는 구조
  - 수혜업체인 봉제업체들은 일감이 많은 성수기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바쁜 시기에 설치작업을 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

-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노력 필요
    - 봉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는 지원될 품목, 집행될 시기, 공고·선정 등 연중 지원사업 추진일정 등임
    - 지원품목은 필요한 품목목록을 최대한 확대하여 일정기간(예 : 3년 등) 확정·유지함으로써 신규 참여업체나 참여제한이 해제되는 업체들로 하여금 신청할 품목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
    - 집행될 시기를 포함하여 공고·선정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1년 간의 업무집행 process를 전용사이트나 APP 등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여 수혜자의 준비를 도와줄 필요
- \* 예 : 공고 2월 중, 선정 3월말까지, 집행 4월~11월말까지 등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그림 4-3] 작업환경개선사업 문제점-개선방향-제도개선안



## 제5장

### 결론 및 정책시사점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단계적 접근

-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인력 등 지원체계 또한 갖추어져야 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
- 단기('18~'19)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수준의 업무 매뉴얼 마련
  - 지원업체 DB구축을 통한 지원이력 관리
  - 참여 설치업체 평가제도 도입
  - 오프라인 홍보 확대
  - 참여저조·부적합 품목 제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요구 품목 반영
  - 지원품목 표식 부착
  - 지원과정 편의성 제고
  -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참여 유도



## ▣ 2018년 작업환경개선방안 지원체계 확립

- 중장기('20~)적으로 해결해야할 개선방안
  - 작업환경개선사업 설치업체 'POOL제도' 운영
  - 컨설팅과 연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 온라인 홍보 확대
  - RFID Tag 등을 통한 임의처리 방지
  -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확대

## □ 제도개선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행정예산 확충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연 7~8억원 수준의 예산규모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크게 발생시키기 어려운 사업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완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을 지속될 경우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노력, 비용 등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므로 행정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규모도 커지는 것이 바람직
- 수혜자의 불만족의 원인은 연간 소수의 수혜업체(2% 수준), 3년의 참여제한 기간, 소규모 지원금액(300만원) 등 사업의 예산과 직결된 부분
  - 수혜자인 봉제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여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규모를 제고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본 사업예산 확충을 통한 행정예산 확보가 바람직,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재단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